

글쓰기의 즐거움

● ● ●
윤 대 응
서울대 인문대학 철학과

한 개인의 영웅적 서사에 의존하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이야기 전개 방식은, 매우 사적인 방식으로 창세 신화의 첫 구절들을 반복하고 있다. 뜻하지 않게 혼란 속으로 던져진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 혹은 세계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채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일상의 뒤틀림에 의해 벼랑 끝까지 몰리기도 하지만, 주인공은 차차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며 마침내 혼란을 영화의 러닝 타임 마지막까지 밀어붙여 승리를 거머쥔다. 공권력은 항상 너무 늦게 도착한다. 그들은 질서 정연한 전략 전술에 맞춰 적진에 침투하지만, 그때는 이미 주인공이 혼란을 몰아낸 다음이다. 주인공은 생사를 넘나들었던 폐공장이나 빌딩을 뒤로 하고 절뚝이며 걸어 나와 공권력의 머쓱해하는 표정 앞에 선다.

이렇듯 주인공이 기존의 질서를 앞질러 혼란에 대면하고 질서를 창출해냈다는 설정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다. 주인공은 혼란을 이겨냄으로써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지켜낸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일상을 고고학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다. 바로 그렇게 혼란에 ‘직접’ 대면함으로써, 즉 혼란을 겪어냄으로써 질서는 혼란의 영역에 있던 에너지들에 일 자리를 구해준다. 질서는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되는 것이다. 주인공의 사적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세계정세 도처에 불붙던 불화들은 종식되고 새로운 관계들이 탄생한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의 원판에 각을 새겨 질서를 창출해내는 창세 신화의 원형적 구도가 변주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정확히 같은 과정이 글쓰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글을 썼을 때만 비로소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장 끝에 온점이 찍어지는 순간과 함께 이해의 전구에는 불이 켜진다. 안개가 가득 낀 한밤중에 공항 위를 떠돌던 항공기가, 활주로에 불이 켜지자 비로소 착륙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때문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나의 생각이 옳다면,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이와 같은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일기의 중요성은 그것이 생애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글쓰기의 첫 형식이라는 데 있다. 모든 것의 혁명적 본성은 그 ‘처음’에 있으며, 이후의 역사는 그것의 본성과 기능이 타락해가는 과정이라는 주장에 입각한 벤야민(W. Benjamin)의 알레고리적 사유를 참작해본다면, 현란한 수사들을 배워 맨살을 가려버리기 전의 글쓰기, 그러한 글쓰기로서의 일기에 주목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일기쓰기에 막 입문한 초등학생들이 하나같이 ‘나는 오늘’이라는 말로 글을 개시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들은 ‘나’가 글을 쓰고 있다는 반성적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음과 동시에 ‘오늘’이라는 시점을 글의 서두에 새겨 넣음으로써 제재와 주제의 펼쳐짐을 지탱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설치된 형식들은 나 ‘는’ 오늘 무엇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로 엮어져 일기의 현재성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현재성. 나는 바로 이 말을 통해 글쓰기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일기를 통해 ‘나’의 ‘오늘’을 기록하는 것에서 글쓰기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다룰 수 있는 글쓰기의 종류가 점점 많아져 대학에 입학해서는 논문과 같은 보다 엄격한 형식을 지닌, 전문적인 글쓰기와 함께 하기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즉, 일기와는 다른 목적을 지닌 글쓰기들이 산재해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른 모든 종류의 글쓰기들은 근본적으로 일기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이 야훼에게서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초등학생 시절 담임선생님이 일기를 숙제로 써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포고에는 사실 “네가 쓸 수 있는 글들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예언이 함께 포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리하듯이, 일기의 자손들은 일기에 대해 하나의 큰 핏줄 속에서 흐르고 있다. 글쓰기의 경우, 그것은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리코르(P. Ricoeur)가 모든 해석학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해석학이라고 말했을 때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전문적인 글쓰기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가 ‘오늘’까지 세계에 대해 이해해 온 바가 투영된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나’의 이해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들, 그로부터 형성된 관심사와 가치관이 깃들어있는 것이 아니던가.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곳에서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배경들. 바로 이와 같은 이해가 펜촉이나 자 판에 앞서 ‘나’의 글이 쓰일 지면 위를 측량하고 마지막 온점까지 찍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을 뼈곡하게 써넣고도 남는 여백의 아주 사적인 비밀은, 띄어 쓴 활자와 문장 사이가 모두 ‘나’의 정신이 유희하는 공간이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할리우드의 저 영웅처럼, 세계에 대한 앞선 이해들의 웅성거림에 나뭇의 질서를 부여하여 의식적인 삶의 형태로 가공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직접’ 항상 들쭉날쭉한 몸뚱이로 달아나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들을 붙잡아 식별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고 색깔을 붙여넣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태초의 혼돈을 재료로 질서 잡힌 천지를 만드는 창세 신화들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 않는가? 머릿속에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감정들을 글을 통해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모습으로 창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글쓰기의 조상은 다름 아닌 일기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어떤 글쓰기를 하든 활자를 통해 삶 자체를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글을 씀으로써 안개처럼 뿌옇게 도처에 깔려있는 ‘나’의 삶들을 움켜쥐어 물방울로 만드는 즐거운 작업을 한다. 크게는 ‘나’ 자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나뭇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글쓰기에서 희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글은 일종의 정제된 메모 덩어리이다.

믿기 힘들 정도로 거창한 이야기일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어떻게 논문과 같은 ‘딱딱한’ 글쓰기를 통해서도 즐거움을 얻는 것일까? 가령, 사라져가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연구하여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단순하게 본다면 차라리 ‘나’가 아니라 ‘언어학’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혹시 논문을 통해 학점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도 할 수 있어서인가? 하지만 글쓰기를 통해 향유하는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망치로 못을 탁월하고 현란하게 잘 박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쁨과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르다. 글쓰기는 보다 미세하고 정교하며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이 내밀한 희열을 그 자체로부터 제공해준다. 이와 같은 즐거움을 두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니체는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글쓰기를 통해 반복하게 되는 몸짓이 정확히 이와 같다.